

모든 행정규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정부, 규제시스템 16년 만에 대수술 단행

신설·강화뿐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 폐지

정부가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16년 만에 규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보고했으며, 안건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정부는 개정안에 그간 예고해왔던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내용의 비용총량제는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규칙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는 사전 행정예고와 법적처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는 우선 고려 대상을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제한규제'로 명시했다.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선 권의를 접수하는 규제개혁신문고 설치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법률상 운용 근거가

생겼다. 이에 따라 규제의 소관 부처는 신문고로 들어온 건의에 대해 관련분야의 책임자가 실명으로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하거나 3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를 적용받는 사업이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규제'로 정한 국조실 내부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도록 했다.

이런 사후평가 대상 규제에는 의원 입법 규제도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또 신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규제적용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경우에 따라 특례를 허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는 일본의 '그레이트 해소제도'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개정안은 적용대상을

기업과 일반국민으로, 적용범위를 동종업종 등 같은 요건의 기업으로 지정, 특정 기업에만 적용되는 일본식 제도보다 수혜 폭을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밖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부처가 타 부처 소관의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 연관된 규제를 통합관리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제정 후 현재까지 3차례 내용 일부를 고치는 수준의 개정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37개 조문 중 16개 조문을 개정, 13개 조문이 신설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승원 칼럼

한 양돈업자에게서 들었다. 넓은 밭에 울타리를 치고 돼지들을 가둬 기르는데, 돼지들은 갇혀 있음으로 해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유희를 한다.

한 돼지의 꼬리가 반대 방향으로 꼬부라지고 끝에 흰 털이 돌아 있는데, 호기심 많은 어느 돼지가 문득 그 기이한 꼬리를 이빨로 물어 잡아당겼다. 자기의 꼬리를 물린 돼지는 "왜 이래?" 하고 반발한다. 옆의 다른 돼지가 기이한 꼬리에 관심을 가지고 쫓아가 물어뜯어 본다.

기이한 꼬리의 주인은 더 반발을 하지만 어느새 그 꼬리는 많은 돼지들의 관심사가 된다. 이때부터 돼지들은 너도나도 그 기이한 꼬리를 공격한다. 기이한 꼬리의 돼지는 피를 흘리며 도망 다닌다. 돼지의 꼬리는 피 흘리며 피해 다니는 돼지를 공격하는 데에 재미를 느끼고 더욱 공격을 한다. 마침내 기이한 꼬리의 돼지는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다.

오래전부터 속속들이 부패하여 굶아 있는 한국 사회 각계각층의 굶이굽이

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차별교육을 하는 각종의 고등학교나 여지저지에 준동하는 사교육의 학원이나 족집게 과외들이 그러하다. 아이들은 감옥 같은 정글의 경쟁 속에서 서로를 시기 질투하며 꺾어내리는 감정을 기른다. 돈이면 다 된다는 분위기에서 자라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성적순의 출 세우기 경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는 그들은 놀이처럼 만만한 아이 하나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면서 악마적인 희열을 느낀다. 스스로 야만의 악마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학대를 즐기는 것이다. 그러한 아이들은 군대에 가서도 그러한 악마적인 유희를 계속하게 된다.

'청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Boys, be ambitious!)라는 말이 있다. 오래전, 미국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박사가 일본의 농림학교에 와서 학생들이 가르치다가 귀국할 때 고별 연설을 하면서 한 말이다. 요즘 교육자들은 '야망'이란 말을 '꿈'이란 말로 바

문제는 청소년의 교육에 있다

이에서 그 피고름이 터지고 있다. 그 원인은 윤리의식이 없는 현대인들의 즉물적이고 동물적인 속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종교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여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과 허영과 명예를 누린 한 사람의 탐욕과 착취로 인하여 부실 운영되다가 침몰한 세월호의 비극. 윤리병을 때 죽인 산업병들의 악마적인 행위. 한 병장이 자기를 왕따시킨 자들을 광적으로 쫓아 나선. 담배를 피운 후배 여중생을 몰래 때려죽인 선배 학생들의 잔인한 행위. 관료 출신의 법관 출신들의 짜고 잘 해먹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근본 원인은 교육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 세상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도입한 교육 제도 아래서 스트레스 받고 자라난 신경증 환자들로 가득 차 있다. 모든 아이들은 야만(정글)의 경쟁 속에 빠져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출세시키고, 프로크르테스의 침대(역적인 교육의 기준)를 놓아 두고 그 침대보다 길면 잘라 내고 짧으면 잡아당겨 놓여 준다.

일제고사가 그러하고, 수능이 그러

꾸어 쓴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야망(꿈)을 가져라'는 말 뒤에 붙어 있는 말, "돈이나 이기적인 성취와 흔히 말하는 명성이라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격체로서 가져야 할 모든 것을 위해서 야망을 가져라" 이것을 놓치고 있다.

윤리의식을 망각한 야망(꿈)이 돈과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에 집착할 때 그것은 아비한 욕망이 되는 것이다. 욕망이 발전하면 탐욕이 되고 그 탐욕을 채우려면 착취를 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사회는 흑심한 계급사회이다. 몇백억 원, 몇십억 원, 몇억 원, 몇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달에 기껏 오십만 원, 백만 원쯤을 받는 사람도 있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한 우리들의 교육은 돈벌이 잘하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차지하는 방법(욕망)을 가르친다.

하지만 교육이 시장경제라는 정글의 수렁에 빠져 있는 한 인간 개조는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그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면 잔인한 놀이를 즐기는 야만적인 악마들은 거듭 생겨날 수밖에 없다. <소설가>

3중 사업장 환경관리권

전남도 일선 시군에 위임

전남도가 환경관리권을 두고 일선 시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부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본보 8월12일자 5면>

전남도는 19일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등 도내 산단에 입주한 3중 사업장 126곳에 대한 환경관리권을 시군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수, 광양, 순천 등 광양만권을 낀 여수산단 등 광역관리가 필요한 1, 2중 사업장은 도가 관리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해 시군과의 갈등 여지는 남아있다.

위임 사업장을 지역별로 보면 여수가 22곳, 영암 20곳, 광양 11곳 등 17개 시군이다.

산단별로는 대불산단이 19곳으로 가장 많고 여수산단 18곳, 울촌과 오천산단 각 4곳, 광양산단 3곳, 산단 외 지역 50곳 등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천진난만' 소총 구경 19일 광주 북구청 3중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14 을지연습 안보장비 전시회'를 찾은 중흥어린이집 원생들이 503여단 3대대 장병들로부터 개인화기 소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직접 만져 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반도미래연구, 26일 DJ센터서 김영란 전 대법관 초청 강연회

'김영란법' 조속 처리 촉구

한반도미래연구원(원장 이용섭)은 오는 26일 오후 6시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김영란 전 대법관을 초청해 '공정한 한국사회를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제정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이번 1년동안 제대로 된 시사한번 하

리를 촉구하기 위해 한반도미래연구원의 창립기념 행사로 기획됐다.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김영란 위원장)는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법안을 입법예고했고,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8월 국회에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출했지만, 국회는 지난 1년동안 제대로 된 시사한번 하

지 않고 있다.

이용섭 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돈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물신주의와 천민자본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정의가 무너진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수 천 톤(t)의 옴은 생각보다도 몇 그람(g)이라도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할 때다"며 이번 김영란 전 대법관의 강연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한반도미래연구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실현·복지국가 건설·지역인재 육성과 균형발전·한반도 평화와 위한 정책과 실현방안을 연구·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창립했으며, 원장은 이용섭 전 국회의원이, 이사장은 디케이산업(주) 김보근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최권민기자 cki@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조정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노안리스크/ama inlay를 이용한 시술/디초정 인공 수정체/레스토렌즈/레인드롬 니아비전 인레이

부작용:수술초기 야간 빛반점, 노안리스크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의뢰 제 140611-중-59153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뢰 제081110-중-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최신 30여종) | 항노화치료 | 기미클리닉 | 성형외과 | 지방이식 흡입 | 모발이식 관리 |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 ① 리프팅레이저: 볼레리, 써미지, 웨너트 복합치료
- ② 이드러블 레이저: 스쿠스팀, 아이솔, 브이빔, 프락셀
- ③ 최오전 레이저: 쉐닝맥스, 다이오우드제로
- ④ 피부 미백: 쉐닝맥스, 쉐닝맥스, 쉐닝맥스, 쉐닝맥스
- ⑤ 주름·흉터: 프락셀레이저, 울트라맥스, 울트라맥스, 울트라맥스
- ⑥ 모공: 쉐닝맥스, 프락셀5종
- ⑦ 비인: 내오수드라,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테틱: 385-0009 |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문암점] 문희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테틱: 525-7555